

농촌노인의 사적 부조

한 경 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사적 부조란 공적부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노인의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망(informal social network)에서 제공되는 지원을 의미하며,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사적 지원, 사적 지원체계 등의 용어와 상호교환적으로 쓰이고 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의존성의 증가로 가족, 사회, 국가의 보완적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서구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다양한 공적 부양체계를 제도화해 왔다. 그런데 최근들어 공적 부양체계가 갖는 재정적, 사회심리적, 윤리적 한계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서구에서도 사적 지원체계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첫째, 사적지원체계의 성격,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들과 둘째, 이러한 지원체계가 노인의 삶의 질,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작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노인들이 가족, 친척, 이웃, 친구와 같은 1차적 집단으로 구성된 사적 관계망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노인의 사회심리적 통합성 유지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노인들 자신도 공적 부조보다는 사적 지원체계의 활용을 선호하며, 사적 지원 체계는 은퇴, 사별과 같은 부정적 인생사건들에서 오는 충격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고, 노인의 사기와 복지에 직접적이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 부양체계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부양부담의 핵은 결국 사적 영역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애주기상에 내재한 변화와 거시사회적 변화가 모두 현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적 관계망의 가용성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다른 생애단계에 비하여 노인기에는 사적 관

계망 자체가 점차 축소되는 시기이며, 관계망 내의 중심집단(core group)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관계망 자체도 고령화하며 여성화하는 경향도 다르게 된다. 거시사회적 변화로는 출산력의 저하, 평균 수명의 연장, 여성 취업률의 증가, 가족 이동성의 증가, 핵가족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망 크기의 축소, 가용성, 자발성의 감소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적 지원체계의 과부담 현상으로 나타나며, 지원수혜자로서의 노인에게 뿐만 아니라 지원 제공자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1981년 노인문제에 관한 미국 백악관 자문회의(White Conference on Aging)의 주제 중 하나가 '노인을 위한 사적 지원망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노인문제의 와중에서 '숨겨진 희생자'(hidden victims)라고 불리는 1차 부양자의 역할과다 문제라든지, 노인학대, 노인유기등에 관한 보고의 증가는, 서구에서 사적 지원체계의 적절한 활용, 유지를 위한 많은 전략적 연구들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노인을 위한 공적부조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노인부양을 거의 사적 지원체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노인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하고 불리한 지역 환경에 살고 있는 농촌노인의 경우에는 사적 지원체계에의 의존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추론되나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사적 지원망을 살펴 본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본 글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의 사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관한 몇가지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노인 복지와 사적 지원망

사적 지원망이 노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과 생애사

건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증재역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애정, 존경심, 인정받음, 소속감, 정체감, 안정감등의 기본적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 심리적 복지에 필수적이다. 사적 관계망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공적 지원망이 분담할 수 없는 독특한 위치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Thoits(1982)는 사적 지원망은 '사람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도'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접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사회심리적 측면의 기능 뿐만 아니라 걷기, 웃입기, 먹기 등 기본적 ADL에서의 도움이나 집안 가사일, 바깥출입 등 도구적 ADL에 있어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망의 기능은 노인의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사적 지원의 가치는 이러한 직접적 영향도 중요하지만 노화와 관련된 인생사건, 경험등의 부정적 영향을 증재하는 간접적 과정이 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된다. 노인기는 다른 생애단계에 비하여 생애사건(life events)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들의 성격이 비가역적이며, 만성적이고, 상실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특질을 가진다. 이러한 생애사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는가는 사회적 자원, 심리적 자원, 구체적 대응반응(coping response)에 의해 결정지워진다. 이때 사적 지원 체계는 대응양식 결정, 사회화, 공적 부조에의 연결등의 기제를 통하여 생애사건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buffering)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대응과정에서 사적 관계망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노인들은 이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하는가, 대응양식과 사적 지원체계의 특징은 어떤 관련성을 가지며, 그 관련성은 효율적 대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번째 메카니즘으로 지적되는 것은 노년기 역할변화에 관한 사회화의 기능이다. 노년기 역할은 무정형성, 무규범성이 그 특징으로, 사적 지원망의 성원들이 노인이 이러한 역할변화에 대해 준비하도록 도울수 있다. 역할모델이 되어 줄 수도 있으며, 연령 동년배인 친구들은 특히 건강 악화, 배우자 사망, 죽음 등 연령과 관련된 구체적 문제에 대한 공통의 관

심, 이해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편, 서구에서는 노인이 공적 부조를 활용하도록 연결시켜주는 것도 사적 지원체계의 중요한 역할로 나타난다. 어떤 부조가 필요하고 적당한가, 어떻게 이용하는가 등의 정보제공이나 관료주의 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을 수행하여 공적부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간접적 영향이라고 하겠다.

이상의 직접/간접적 영향과 그 과정에 관하여 우리나라 노인, 그 중에서도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사적 지원체계의 활용과정에 관한 연구는 지원체계의 전략적 활용 측면에서 기초적 작업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적 지원망의 기본적 구조와 기능에 관한 잘 짜여진 연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적 지원 체계의 구조와 기능

사적 지원망은 Thoits(1982)가 지적하였듯이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적 지원체계의 파악을 위해서는 구조적 측면, 기능적 측면 모두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구조는 주로 지원망의 크기, 근접성, 접촉빈도, 밀도, 대칭성, 능력(ability),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특징들의 안정성등을 의미한다. 전반적 구조의 파악을 통해 각 노인이 보유하는 지원망의 종합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한편 각 개별적 구조 특성을 지원망 내의 각 구성원과의 연관성 차원에서 탐색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이는 지원망의 역동성(dynamics)를 이해하는데 기초 작업이 된다. 노인부양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사회 문화적 규범에 따라서, 그리고 노인이 보유한 사회심리적 자원의 양에 따라서, 각 구조적 측면은 노인의 복지에 고유의 의미, 중요성등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독립성, 교환관계를 강조하는 서구의 노인觀과 가족관계 규범에서는, 사적 지원체계와의 관계에 있어 대칭성의 와해가 노인의 사기 저하등 심리적 복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또한 나아가서 구성원간의 접촉빈도를 낮추게 한다든지, 크기의 축소를 가져오는 등 다른 구조적 특성들과 상호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촌 노인의 경우 가족규범등이 전통적이고, 친구/이웃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안정적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 노인보다 사회적 고립정도가 심하지 않고 비교적 강한 사적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농에 따른 젊은 인구층의 감소와 그에 수반되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확대가족의 감소와 가족주기상 쇠퇴기에 속하는 가족의 상대적 비율의 증가를 가져와서, 도시의 두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문제, 건강악화 문제와 함께, 소외, 고독감 등 정서적 문제도 농촌노인을 특별히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의 증가와 함께 농촌가구의 노인 부양 의식의 변화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노인의 현실태는 사적 지원망 측면에서 보면, 자녀들이 이농한 경우에 우선 근접성, 접촉빈도 등에 문제가 있게 되고, 이들이 대개 도시의 저소득층을 이룬다는 점과 연결시켜 볼 때, 능력(ability)이나 대칭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구조가 사적 지원망의 양적 측면이라면 기능은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조적 특성만 가지고는 노인이 실제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제공받는가를 추론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질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우선 모든 사적 관계망이 다 지원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원망의 구성원이 노인에게 있어 의미하는 바, 중요성 등에 있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원 기능을 살펴보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성격에 따라 도구적(instrumental) 지원과 사회정서적(socioemotional) 지원기능으로 대별해 보는 것이다. 경제적 지원, 서비스, 물품, 정보 제공, 간병과 같은 지원이 전자에 속하며, 애정, 이해, 존경, 소속감 등의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도록 도와 주는 것이 후자에 속한다.

이러한 지원기능에 있어 그 객관적 측면보다도 노인들의 주관적 평가, 즉 지원망의 수가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언제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지, 접촉이 충분하다고 지각하는지 등 주관적으로 지각된 충분성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특히 중요하다고 한다. 같은 관점에서 접촉의 성격이 즐거운 관계인가 아니면 갈등, 의무, 긴장 관계인가 하는 측면의 연구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노인에 따라서는 주변으로부터의 지원을

자신이 늙었고 쓸모없게 되었음을 일깨우는, '원하지 않는 역할역전(role reversal)'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적 지원 기능을 활용하는 과정에 관하여 몇가지 대안적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노인이 가지고 있는 사적 지원망 중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의 유형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구성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는 과업전문(task-specific)모델이 있다.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기본가정을 근거에 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지원의 성격과 지원집단의 특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요소는 관계의 일차성(primacy), 친밀감, 개인적 책임감 등이라고 보는 위계적 보상 모델이 있다. 노인은 사적 관계망 내에서 가족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이 친구,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적 지원망을 선택한다는, 즉 선호의 순서(hierarchical order of preference)에 따라 지원요소를 선택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필요로 하는 도움이 수단적 지원이건 정서적 지원이건 관계없이 모두 이런 순서에 따른다는 견해로, 가족 내에서도 배우자나 자녀를 제일 먼저, 다음이 형제와 같은 가까운 친척, 다음이 조카와 같은 조금 더 먼 친척등의 순서로 가장 선호하는 선택이 활용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다음 수준의 친밀성이 보상/대체로 이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 두 이론이 상호보완적으로 노인의 사적지원망 활용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 탐색작업이 필요하겠다.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과제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자녀가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망에 있어 친족의 선택성에 관한 이 광자(1988)의 연구에서 시사되듯이 일상적/심리적/경제적 도움의 필요시에는 오히려 비친족을 선호하고, 질병, 사고 등의 위기시에 친족이 선택되는 과업전문 유형이 노인에게서도 발견될 것인가? 농촌의 경우 산업화 이후 친족이 담당했던 많은 부분이 비친족망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서, 최 재석(1986)은 혈연적 유대가 지연에 의해 그 기능이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노인에 대한 사적 지원도 과연 그러한가?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인성 특성등 노인의 유형적 특성에 따라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지배적이며 선호되느냐가 달라질 것으로 보는

데, 이에 따라 노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적 지원체계에 대한 지원

노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체계 자체가 지원받을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부양은 부양 제공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 긴장을 가져올 가능성 높으며, 지원 제공자와 노인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이러한 비용(costs)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노인과의 유대가 깊을수록 심리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부담과 비용이 과중하다 보면 지원체계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여 밀도, 자발성등이 감소할 수 있고, 가중되는, 만성적 부담을 지탱할 수 없어 지원망 자체가 붕괴되거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원망이 노인과 사회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점차 두게 되면서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가져올 수 있으며, 노인 학대나 노인 유기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지원망 구성원의 가족문제나 심리적,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적 지원체계를 지원해주는 사회적, 공적 지원체계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들어 두 지원체계의 상호 보완적 통합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적지원망이 정태적 구성체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연소노인에서 고령노인으로 노화과정이 심화될수록 축소되며 점차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노년 후기에 올수록 공적부조가 맡아야 하는 부분이 커진다는 인식도 필요하다고 본다.

맺 음 말

노인 지원의 목적은 노인 문제의 예방(prevention), 노인으로서의 생

활애의 적응(adaptation), 의존적 노인의 회복/장기적 부양(rehabilitation/ long term care)의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방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스트레스의 영향을 중재하여 건강 복지에 영향을 적도록 하는 측면이다. 적응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 높은 일상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 부양은 양노원, 노인 병원등 다양한 수준의 제도적 주거장치(institutionalized housing)를 말한다. 즉 노인의 의존성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립성, 자경심, 자아통제성을 높이는 것이 노인 지원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러한 지원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망과 사적 지원망의 상호보완적 통합, 균형적 역할 분담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겠다. 노인 복지에 관한 연구도 같은 의미에서의 균형을 잃지 않고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